

## 오지가타케 산의 액티비티

오지가타케 산을 찾는 사람들은 정상 부근의 산책로를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부터 패러글라이딩으로 스틸 넘치는 공중 산책을 즐기는 것까지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위킹과 하이킹*

오지가타케 (해발 234m)는 3 개의 등산로 중 하나를 통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등산로를 선택하든 약 1 시간 정도 소요되며, 등산화 외에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산로 1은 시부카와 해변 서쪽에 있는 국도 430 호선과 현도 462 호선 교차로 부근에서 시작되며, 등산로 입구에 여러 개의 표지판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2는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430 번 국도를 따라 시작됩니다. 등산로 3의 입구는 같은 길을 따라 서쪽으로 더 가면 레스토랑 '호카제' 뒤편에 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는 정상 주차장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잘 정비된 대체로 평탄한 산책로가 몇 군데 있으며, 거기서 세트 내해를 넘어 시코쿠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책로에는 특이한 모양의 화강암 거석을 통과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옆모습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스마일 바위(니코니코 이와), 길쭉한 바위가 모여 있는 병아리 바위(히요코 이와), 동물을 닮은 듯한 3 개의 기둥 모양의 바위 등 다양한 기암이 산재해 있습니다.

### *볼더링, 패러글라이딩, 물놀이*

수십 년 동안 오지가타케 산은 어드벤처 스포츠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현지 프리클라이머들은 1970년대부터 오지가타케의 암벽에서 실력을 연마해 왔으며, 이 산은 로프나 하네스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를 오르는 볼더링이 일본에서 시작된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지가타케에서는 패러글라이딩도 인기 있는 액티비티이며, 조종사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초보자도 숙련된 강사와 함께 비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해발 0m 지점의 시부카와 해안은 윈드서핑과 세일링을 즐길 수 있는 인기 명소입니다. 오지가타케 아래에 있는 작은 무인도, 일명 고래섬(구지라지마)에는 2명부터 52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캠핑장이 있으며, '글램핑' 구역에서는 가구가 비치된 텐트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